

해외 출장 보고서

(부탄 2015 국제 행복 컨퍼런스)

출 장 자 : 강현수, 정종관, 정우철

출장일시 : 2015년 11월 2일 - 11월 8일

출장목적 : 부탄 2015 국제 행복 컨퍼런스 참석 및
부탄 학술 협력 기관 방문

[목차]

1. 출장 목적 및 출장 개요
2. 부탄 개관
3. 2015 국제행복 컨퍼런스 개요 및
참석 내용
4. 부탄 학술 협력 기관 방문
(CBS, 국립도서관, GNHC)
5. 부탄 현장 방문
6. 출장 의의와 향후 부탄과 협력 방안
7. 참고문헌
8. 부록
 - 가. 부탄 방문시 만난 현지 주요 인사리스트
 - 나. 컨퍼런스 발표자료 강현수 원장
 - 다. 컨퍼런스 발표자료 정종관 박사

1. 출장 목적 및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가. 부탄의 2015 국제 행복 컨퍼런스 참석

동남아시아 소국 부탄은 국가적으로 행복 정책에 대해 매우 관심을 많은 가진 나라이다. 부탄은 국민의 행복을 국가의 최대 목표로 삼고 GDP가 아닌 국민총행복도(Gross National Happiness)라는 독특한 행복 지표를 만들어 그 나라의 모든 정책에 반영한다. 여기에 <국민총행복위원회 (GNHC)> 라는 기구를 통해 국가의 법령 하나까지도 국민의 행복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부탄 정부 산하 연구기관인 <부탄 연구 및 GNH 연구를 위한 센터(CBS)>는 2004년 2월 팀푸에서 국민 총 행복의 첫 번째 국제 회의(GNH)를 조직한 이후 매년 국제적 행복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행복에 관한 전세계 전문가들의 논문 발표 및 토론의 장을 만들고 있다.

그동안 충남연구원은 2012년부터 충남연구원이 주관하여 국제 행복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때 3년 연속 부탄 측 인사들을 초청해 왔다. 또한 2013년 부탄에서 주최하는 국제 행복 컨퍼런스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속적 교류 관계를 기반으로 이번에 부탄 CBS가 개최하는 국제 행복 컨퍼런스에 충남연구원을 공식 초청했고, 이에 응답하여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 정종관박사가 충남의 행복 정책 사례를 가지고 컨퍼런스에 발표자로 참가하게 되었다.

나. 부탄 학술 협력 기관 방문

그동안 충남연구원에서는 세 차례 연구원 차원에서 부탄을 방문하여 GNH 및 CBS 와 상호 교류한 바 있으며, 또한 GNHC 및 CBS 관계자가 세 차례 충남연구원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부탄 국제 행복 컨퍼런스 참석과 아울러 부탄의 GNHC 및 CBS 를 방문하여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함과 동시에, 부탄 방문 처음으로 부탄 국립도서관을 방문하여 양 기관의 교류 협력을 논의하게 되었다.

(2) 세부일정:

일정	세부내용
1일차/11.2	17:15-21:05[이동]인천국제공항->방콕수완나폼국제공항 (대한항공)

	21:05-21:30[입국수속]방콕수완나폼국제공항 21:30 [휴식]호텔숙박 (Best Western Premier Amaranth Suvarnabhumi Airport)
2일차/11.3	03:30-04:30[세면및이동]호텔->방콕수완나폼국제공항 04:30-06:30[출국수속]방콕수완나폼국제공항 06:30-10:05[이동]방콕수완나폼국제공항->부탄파로공항 (Bhutan Airlines) 10:05-11:00[입국수속] 부탄 파로 국제공항 11:00-17:00[현장답사] 탁상사원 방문 17:00-20:00[공식] 컨퍼런스환영회 및 만찬-부탄총리(체링토브가이) 접견 20:00- [휴식] 호텔 (파로 Kichu Resort)
3일차/11.4	09:00-13:00[공식일정]컨퍼런스 개막식 및 1일차 세션 참석 13:00-14:00[점심식사]컨퍼런스 장내 14:00-17:30[현장답사]Paro Museum, Paro Dzong방문 17:30-18:30[휴식]Paro Drukchen Hotel에서 민속공연 관람 18:30-20:00[저녁식사]호텔에서 김소민 한겨레 특파원 대담 20:00- [휴식]Paro Drukchen Hotel
4일차/11.5	08:30-10:30[이동]Paro Drukchen Hotel->팀푸 09:30-09:40[이동중]탐축라캉철교 경유 10:30-12:00[현장답사]팀푸 거대불상-쿠엔셀포드랑의 도르텐마 12:00-13:20[식사]팀푸 한국음식점 산마루식당 - 부탄 현지 여행사대표 Surijana와 식사 13:20-13:40[현장답사]팀푸 Weaving&Art Gallery 방문 13:40-17:50[공식]부탄국립도서관 방문 CBS 방문 GNHC(부탄행복위원회)방문 17:50-20:40[이동]팀푸->파로 20:40-21:30[현장답사] 부탄 전통가옥에서 부탄 전통 식사 21:30- [휴식] Paro Drukchen Hotel
5일차/11.6	09:00-13:10[공식]컨퍼런스 3일차 세션 강현수 원장 발표-Creating an Environment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and Good Governance 정종관 박사 발표 - An Initiativ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in Chungnam Province 13:30-15:00[이동]컨퍼런스장->Chelela Pass 15:00-16:20[현장답사]Chelela Pass

	16:20-17:50[이동]Chelela Pass->컨퍼런스장 18:00-20:00[공식]컨퍼런스 폐막식 및 폐막 만찬 참석 20:00-22:00[현장답사]부탄 전통가옥에서 부탄 전통문화 체험 22:30- [휴식] Paro Drukchen Hotel
6일차 /11.7	08:30-10:15[출국수속]부탄파로국제공항 10:15-15:55[이동]부탄파로국제공항->수완나폼국제공항 (Bhutan Airlines) 15:55-16:30[입국수속]방콕수완나폼국제공항 16:30-21:45[대기 및 출국수속]방콕수완나폼국제공항 21:45-04:50[이동]방콕국제공항->인천국제공항/대한항공
7일차 /11.8	04:50-05:30[입국수속]인천국제공항 05:30 [해산]

2. 부탄 개관

부탄이란 나라는 중국과 인도의 중간에 위치해 있고 네팔의 동쪽 히말라야산맥의 동쪽 끝에 있는 작은 나라이다. 면적은 한반도의 약 1/5정도 된다. 2013년 기준으로 인구 73만명, 1인당 국민소득 2,863달러로 아주 가난한 나라이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 모든 초,중,고등학교까지는 교육비가 무료이며, 병원비도 무료이다. 심지어는 외국인도 병원에 찾아가면 무료로 진료와 치료를 해준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국비유학제도가 있고, 1999년부터 TV가 보급되었다. 부탄은 아직도 비포장도로가 많고, 집이나 건물은 전통 양식으로 지어진 획일적 건축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탄 유일의 국제선 공항인 파로의 공항청사도 전통건축 양식을 보인다. 수도 텡푸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텡푸 거리의 모든 건물들은 비슷한 높이로 나지막한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있고 어느 것도 예외 없이 부탄 전통 건축양식의 지붕과 창문을 갖고 있다. 부탄의 건축양식은 모두 획일적으로 전통양식을 따라야 하고, 6층이하의 건물로 지어야 한다고 한다. 6층이하의 제한은 사원(dzong)보다 높아서는 안된다는 이유이기도 하다. 부탄국민은 의복도 개인적인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고(GHO, 남자의상)와 키라(KIRA, 여자의상)라는 전통의상을 입고 모든 일을 보고 학교를 다닌다. 국민의 90%이상이 불교 종교를 따르고 자신의 전통에 대해 매우 강한 자부심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매우 강하다. 부탄의 화폐는 눌트럼을 사용하기도 하고 동시에 인도의 루피야도 역시 사용한다. 1974년 화폐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거의 물물교환에 의존하였고 화폐의 개념이 없었다고 한다.

행복에 대한 국가별 순위에 대해 OECD, UN, 유럽 신경경제재단(NEF)에서 조사하는 자료에 의하면 부탄은 행복지수가 상위랭킹에 드는 나라로 발표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중하위에 위치해 있다. 어찌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가 국민들은 더 행복하다는 결과가 나올까?

부탄의 국민들은 왕을 매우 존경하고 경외한다. 온 거리를 지나가도 온갖 건물에도 왕과 왕비에 대한 사진이 걸려 있고 “Long Live! Our King!”이라는 문구도 가끔 보게 된다. 이처럼 왕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이다. 왜 그렇게 부탄사람들은 왕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일까? 처음엔 의문을 가졌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왕이나 그 가족들도 모두 검소하게 생활하고 있고 개인재산도 없지만 백성들에게 키두(토지증여)를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국토의 약 20%를 왕이 소유한 토지 즉 국공유지이지만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토지없는 가난한 농민은 왕에게 토지를 달라고 청원할 권리가 있고 왕은 여기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키두로 받은 땅은 증여나 판매는 물론 저당도 잡힐 수 없다.

부탄의 4대 지그메 싱겔 왕추크왕은 2008년 절대군주제를 폐지하고 입헌군주제로 전환하는 헌법의 초안을 마련했다. 원래 부탄왕은 65세에 왕위를 물려주게 되어 있는데 자신은 2006년 51세의 젊은 나이에 스스로 왕좌를 아들에게 양위했고 5대 왕은 2008년 양원제를 기초로 한 헌법을 제정, 공포했다. 이러한 이유로 부탄은 역사상 처음으로 국왕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절대군주국에서 입헌군주국으로 전환한 나라이기도 하다.

거리를 지나가보면 참으로 신기한 것이 거지가 없고,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밝은 모습과 전통의상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체계화되고 폐쇄적임을 느낄 수도 있지만, 순수하고 소박한 삶과 느리지만 여유 있는 삶도 느낄 수 있다. 만나본 사람이 지위가 높건 낮건 권위의식을 느낄 수 없었고 빈부의 격차가 크지 않고 욕심도 많지 않은 것 같다. 총리나 고위관직에 있는 사람들을 컨퍼런스에서 보았지만 전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는 없고 모두 같은 일반인같이 행동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밥먹고 말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 나라는 모든 국민이 평등함을 실천하는구나하고 느꼈다.

부탄의 자연경관은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아름다움이 있다. 인위적인지 않고 거친 자연환경 그대로 보존하려는 점이 돋보인다. 부탄사람들은 매우 겸손하고 친절하지만 비굴하지 않고 자부심이 강하다. 고유한 전통과 불교문화 그리고 왕에 대한 신뢰감이 대단하다. 낯선 외국인들을 자신의 집에 늦은 시간에 초대하여 구석구석 구경시켜주고 거리낌 없이 끌어들여 차와 술, 음식을 대접하는 친절함에 대해서는 사뭇 놀라움도 느꼈다. 과거 우리사회의 풍את이를 연상하게 되는 그들만의 이웃끼리 서로 돕고 일을 도와주는 긴밀한 가족관계와 공동체 의식 등을 엿볼 수도 있었다. 현재 우리는 이런 전통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지만 이들은 아직도 이런 협동과 공동체 모습이 여전히 남아 있어 과연 부탄 사람들은 행복하구나라는 느낌도 사뭇 다가왔다. 부탄이 세계 기부 11위의 나라라는 사실이 가난하지만 이웃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고 도와주는 마음이 내재되어 있기에 충분히 가능했으리라 본다.

또 한가지 느낀 점은 이곳 부탄도 이제는 개방화 바람이 불어서인지 많은 맨션(우리로 따지면 아파트)과 도로를 포장 건설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모든 건설 현장에는 인도계 사람이나 네팔사람들이 노역자로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부탄사람들은 한 명도 볼 수 없었다. 부탄은 이런 힘든 일은 그들보다 못사는 이웃 나라들의 인력을 이용하는 점이 또한 신기했다. 그 정도로 생계유지(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기에 이런 류의 힘든 노역 일은 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했다.

3. 2015 국제행복 컨퍼런스 개요 및 참석 내용

(1) 2015 국제 GNH 컨퍼런스 목적

부탄은 국민 행복을 위해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모든 분야와 정책의 최우선 지표(Index)를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이라는 개념으로 정책을 수립, 이행한다. 부탄 연구 및 GNH 연구를 위한 센터(CBS)는 2004년 2월 팀푸에서 국민 총 행복의 첫 번째 국제회의(GNH)를 조직한 이후 매년 국제적 행복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전세계 전문가들의 논문 발표 및 세미나 발표로 행복의 구체적 개념과 이행 지표를 체계적으로 구체화 시키며, 부탄 국정지표로서 GNH를 직접 활용하고 있다.

부탄 CBS는 2015년 GNH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November 4- 6, 2015, Paro in Bhutan)에 충남연구원 강현수원장, 정종관박사가 발표자로 초청하여 행복발전을 위한 충남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 및 질의응답을 가졌다.

2015년 국제 행복 컨퍼런스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인간 복지, 사회의 진보와 행복에 관한 개념 확립
- 국내 총생산 (GDP)의 단점 발표 및 과거의 성과 및 현재, 미래의 중요한 문제 발표
- 정책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표의 발굴과 정책 실천의 측면에서 이행 사례 발표
- 행복 연구 결과 및 지표 / 프레임 워크 / 행복, 웰빙과 지속 가능성을 측정 / 방법론 접근
- GNH에 중점을 두면서 지속적이고 창조적인 GNH 플랫폼 모델을 설계

(2) 일정

- 일시 : November 4- 6, 2015
- 장소 : Paro Garden Palace Lawn in Bhutan
- 참여 : 48개국 약 500여명
- 주최 : The Centre for Bhutan Studies and GNH Research (CBS)

(3) 충남연구원 참가 내용

강현수 원장 발표- Creating a Happy Environment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and Good Governance - Small Stream Movement in ChungNam

정종관 박사 발표- An Initiativ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in Chungnam Province

<발표 자료는 부록 참조>

(4) 컨퍼런스 주요 논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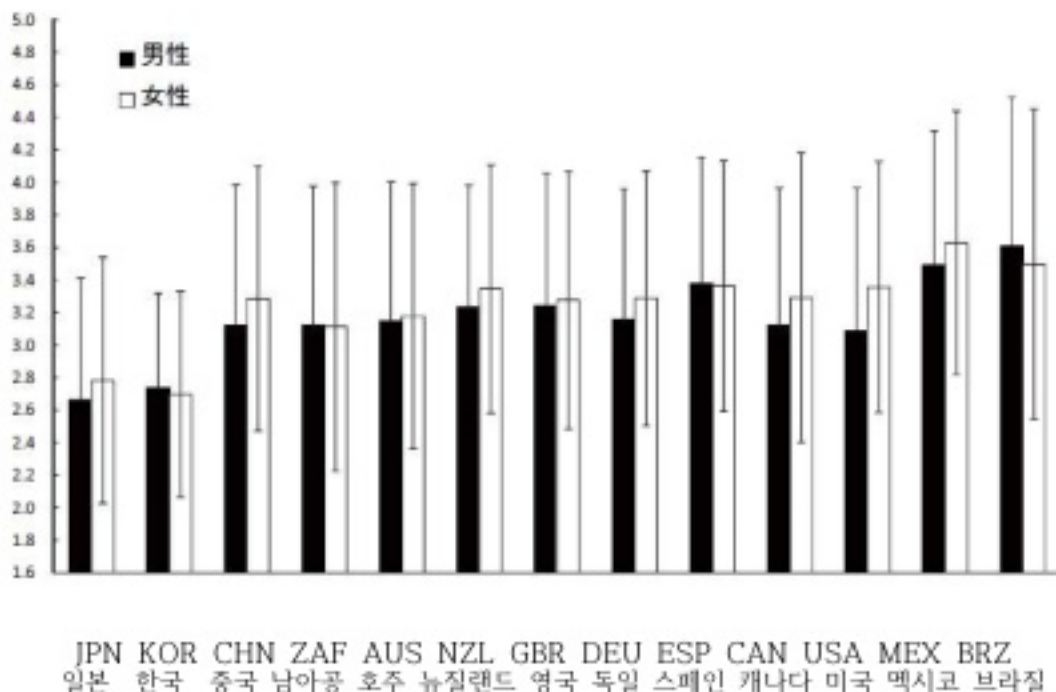
주요 발표주제로 ① 불교철학의 관점에서 본 행복, ② 행복을 구성하는 4종류로 지속가능한 경제, 환경보전, 사회문화, 거버넌스, ③ 四聖諦(苦集滅道), ④ 행복달성을 위한 우선순위 등이 논의되었다.

행복을 내적 심리의 만족감이나 성취의 상태로 정의하고, 미시적 관점의 행복연구는 개인의 특성과 심리적 요인, 상태에 대한 연구를 장기적으로 연구한 반면, 거시적 관점의 행복은 소득수준과 형평성, 사회자본, 정치적 자유도 등에 대해 주로 연구하고 있다.

생활의 만족도로 본 주요 국가의 수준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낮은 편이다. 그리고 사회적 신뢰면에서의 상호의존성으로 본 행복은 대체로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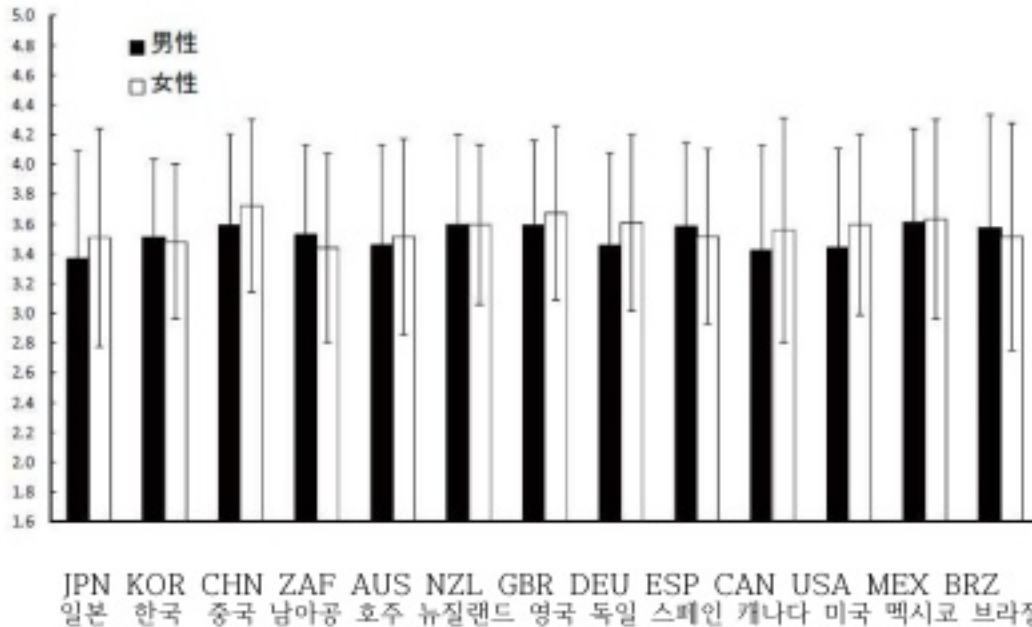
문화심리적 관점에서의 행복을 서양에서는 대체로 개인적 성취와 자존감으로 이루는데 비해 동아시아에서는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집단적, 상호의존적으로 접근한다. 성취와 사회적 관계를 포함하는 개인적 만족도는 문화적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한다는 점에서 주관적 행복의 척도로 적용한다. 따라서 주관적 행복도를 비교할 때 세계화 같은 문화적 변화 요인을 중요하게 다룬다.

Satisfaction with Life



원문출처: Koyasu et al., 2012

Interdependent Happiness



원문출처: Koyasu et al., 2012



국민총행복(GNH) 평가지수는 9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중요도 가중치는 최고 건강(13.1%)에서 최저 교육(9.78%)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서도 눈길을 끄는 것이 '시간 사용의 균형(10.57%)'이다. 부탄 정부는 사람들이 노동을 많이 하면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하루를 3등분해 8시간 일하고 8시간은 자신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고 8시간은 건강을 위해 수면을 취할 것을 권고한다. 그래서인지 부탄국민의 수면시간과 행복과의 상관관계 내용 발표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수면시간(6~9시간) 별로 구분하여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잠을 충분히 잔 사람이 행복도가 높는데, 부탄의 자연환

경 여건상 전력공급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 일찍 잠자리에 들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국민행복도를 높이는데 일조한다고 볼 수 있겠다.

2015년 국민총행복 조사는 9개 영역(domain)에 33개 지표(indicator)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각 지표에 대해 '충분문턱'(sufficiency threshold)을 정하고, 개개인이 각 지표에 대한 충분문턱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조사한다. 충분문턱 조사를 토대로 각 개인의 행복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행복문턱'(happiness threshold)을 적용한다.

부탄 정부는 50%, 66%, 77%의 3개 구분기준(cutoff)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을 네 부류로 나눈다. 즉 33개 지표 가운데 충분문턱 충족 비율이 50% 이하인 사람은 '불행'(unhappy), 50~66%인 사람은 '조금 행복'(narrowly happy), 66~77%인 사람은 '많이 행복'(extensively happy), 77% 이상인 사람은 '아주 행복'(deeply happy)으로 분류한다.

행복지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text{GNH Index} = \text{Hh} + \text{Hu} \times \text{Au}$$

Hh: 행복한 사람 수

Hu: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 수

Au: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 중 평균 충분도

$$\begin{aligned} \text{2015년 GNH Index} &= 0.434 + 0.566 \times 0.569 \\ &= 0.756(\text{신뢰구간: } 0.751\sim 0.761) \end{aligned}$$

부탄 정부는 중간에 해당하는 66%를 행복문턱으로 설정했다. 이는 꽤 높은 수준인데, 정책목표임과 동시에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유도한다. 부탄 정부는 66% 이상을 충족을 행복한 사람, 그 이하를 '아직 행복하지 않은'(not-yet-happy) 사람으로 구분한다. 2015년 국민총행복 조사(모집단 8871, 응답수 7153)에 따르면, 부탄 사람의 8.8%는 불행하고, 47.9%는 조금 행복하고, 35.0%는 많이 행복하며, 전체 인구의 8.4%는 아주 행복하다. 이렇게 측정한 결과는 2010년의 0.743보다 0.013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5년 부탄국민의 56.6%는 '아직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분류하여, 이들을 행복한 사람으로 되게 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부탄 정부는 GNH 지수를 전 국민에 대해 측정할 뿐 아니라 이것을 지역·성·연령·교육수준·직업별로 측정해 이들의 행복을 어떻게 증진시킬 것인가에 대해 맞춤형 시책을 마련한다.

한편 부탄 정부(구체적으로 GNHC)는 GNH를 증진하기 위해 정책심사도구(policy and program screening tool)를 사용하며 국가정책과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GNH를 향상시키는 정책 및 프로젝트는 선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한다.

(5) 컨퍼런스 행사장 이모저모



국제 컨퍼런스가 열린 Paro Garden Palace Lawn는 말 그대로 잔디밭이다. 잔디밭 위에 잣나무 숲앞을 칸 커다란 텐트 2동을 설치하여 3일 동안 1세션, 2세션을 동시에 진행하는 형태로 구성되었다.

사전행사로 11월4일 환영행사에는 부탄 총리가 내방하여 행사를 축하하는 자리와 식사시간을 가졌다. 총리가 입장할 때는 부탄전통 취악기 팡파레와 함께 엄숙하게 입장한다. 착석한 내빈들은 예를 갖춰 모두 일어나 정중하게 그를 맞이하고 그가 자리에 앉자 모두 같이 착석한다. 총리의 행복컨퍼런스에 대한 지루한 연설은 꽤나 길었다. 거의 1시간 가까이 연설한 듯 싶다.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과 포즈를 취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부탄에서는 항상 부탄 전통의상을 입는다. 거의 모든 일상생활 중에 입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부탄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거리에서도 이 전통의상은 모든 부탄국민이 입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경찰이나 군인의 경우는 제복을 입어야 하므로 예외로 둘 수 있다고 한다. 남성의 전통의상은 '고(GHO)'라고 하고 여성은 키라(KIRA)를 단정하게 갖춰 입는다. 그리고 그 위에 '카네'라는 스카프를 두르는데 왼쪽 어깨위에 걸쳐 대각선으로 몸에 두른다. 카네의 경우는 공식적인 축제, 행사자리에서만 착용한다고 한다. 가이드의 말로는 모든 의상, 카네, 그리고 소매길이, 치마길이 차이는 신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차별화한다고 한다. 카네 색상의 구분은 일반적으로 흰색이며 국왕만이 노란색 카네를 두를 수 있다. 적색은 높은 고위 관료나 승려가 두를 수 있다.



충남연구원 강현수 원장과 정종관 박사의 행복 세미나 발표 시 모습이다. 충남연구원 발표는 제2세션이 열리는 장소에서 발표했다. 날씨는 전형적인 가을 날씨였다. 외부 잔디밭에서 세미나가 열렸지만, 다행스럽게도 세미나 내내 화창한 날씨를 유지해서 발표하거나 이동하거나 식사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 세미나장은 모두 커다란 텐트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세미나 동에는 많은 전 세계 외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지루한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며 끝까지 경청하는 모습은 세미나의 열기가 굉장했음을 알 수 있다.

4. 부탄 학술 협력 기관 방문 (CBS, 국립도서관, GNHC)

(1) C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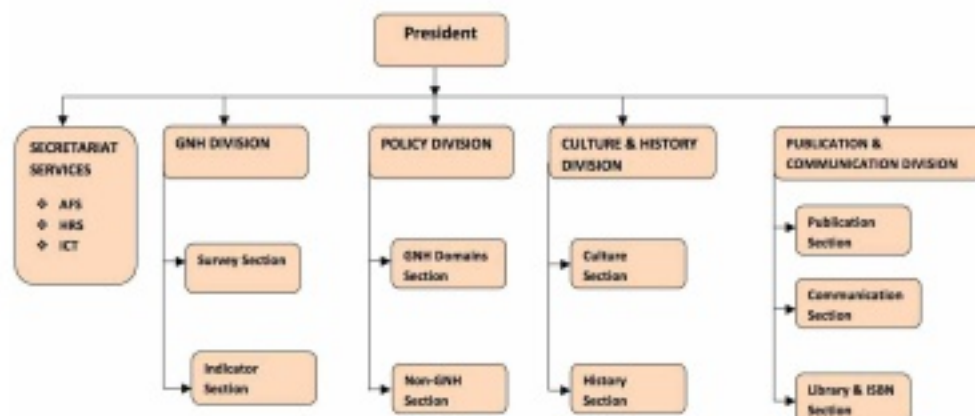
공식명칭은 부탄국민총행복연구소로 부탄정부 최고 행정기관인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었다. 각료회의 의장인 롱포 직미 툰레이가 정부조직령으로 연구소의 설립을 지시하였고(1998. 11. 11), 이에 따라 출범하게 되었다(1999. 3. 25).

연구소는 각료회의에서 승인된 규칙과 규정에 의한 자치조직체로 운영된다.

설립 목적으로는

- 부탄정부 정책과 시책의 개선을 위해 실행 프로그램 피드백을 통한 평가
- 부탄내의 타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연구 지원
-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문화경제적 관점에서 학제적 연구수행
- 부탄 내외의 주요 연구기관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연구에 대한 정보의 거점기관
- 연구위원회에서 부여받은 시책 제안 작성
- 부탄국민 및 외국학자가 요구하는 주제와 관련한 세미나와 특강 주관
- 부탄학자의 요구에 의한 연구 수행
- 연구보고서 발간
- 부탄연구 학회지의 매년 발간
- 신진학자의 연구 참여 지원
- 주요 현안 분석을 위한 개인 연구역량 강화

조직구성은 사무국 외에 행복연구부(지표 및 조사 담당), 정책부(국민행복 영역 및 비영역), 문화역사부, 출판 및 교신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부탄 국립도서관

만남 사람 : Harka Gurung 도서관장

부탄의 국립도서관은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중앙도서관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건물의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고 근무하는 인력도 100명 이하로 적은 규모이다. 2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들어가는 첫 번째 건물은 행정사무와 도서자료를 보관하는 건물이고 뒤편에 보이는 건물은 과거 유물이나 불교 역사 고서적을 보관하며 일반인에게 개방하여 관람토록 하는 역사박물관 용도의 건물이다.



첫 번째 건물에서 밖으로 나와 목판제작소로 이동하는 중간에 보면 건물벽에 탈이나 전통 공예품들을 직접 만들면서 걸어놓고 판매하는 장인을 볼 수 있다. 도서관 내에서 이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신기할 뿐이다.

첫 번째 건물 옆면에는 목판제작소 실이 자그마하게 있다. 여기서는 이 나라 고유의 전통 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 보면 마치 우리나라 팔만대장경같은 느낌이 물씬 느껴진다. 목판의 글씨를 일일이 직접 새겨가며 책을 만든다고 하니 그 정성이 대단하다.



그다음 우리 일행은 부탄 불교 고서적을 보관중인 두 번째 건물로 들어갔다. 이 건물에는 각종 불교에 관한 유물과 고대 서적이 전시되어 있었다. 세계 최고로 큰(Big size) 책도 있었고, 우리나라 한글로 된 법화경도 눈에 띄었다.



Harka Gurung 도서관장의 권한으로 아주 오래된 책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그 오랜 세월에도 불구하고 책의 상태는 매우 온전했으며 다만 겉에만 그 세월의 흔적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벽에 걸려있는 사진 중에 흥미로운 사진이 있었는데 부탄 제1대 왕 왕축의 사진인데 왕이 맨발로 서 있는 사진이 흥미롭다.

(3) GNHC

만남 사람: Nyingtob Pema Norbu 수석기획관

부탄의 정부는 총리와 GNH위원회의 관리 하에 노동성, 정보통신성, 농림성, 교육성, 내무 문화성, 보건성, 외무성, 재무성, 경제성, 공공사업성 등 10개의 기관이 운영된다. 총리와 GNH위원회는 사실상 동등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하니 이 위원회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 지 알 수 있다. 이처럼 대단한 권한을 가졌다는 부탄의 국민행복위원회가 과연 어떤 곳일까 궁금하기도 했기에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다. 위치는 부탄 시내 한가운데 있었고 변화가에 위치해 있었는데 의외로 건물은 1층의 조그마한 20평 정도의 사무실 형태였다. 실로 이게 막대한 권한을 가졌다고 하는 관공서인가 싶을 정도로 초라하고 허름해 보였다.



부탄은 국왕부터 모든 국민까지 국민의 행복을 최대의 가치로 여긴다. 부탄은 GDP가 아닌 국민총행복(Gross National Happiness)이라는 독특한 행복지표를 만들어 그 나라의 모든 정책에 반영한다. 여기에 국민총행복위원회(GNHC)라는 기구를 통해 국가의 법령 하나까지도 국민의 행복을 성장시킬 수 있을지를 기준으로 검토한다.

부탄 정부는 2005년부터 국민 행복을 측정하기 위한 총행복지수를 개발해 2008년부터 2년마다 총행복지수를 조사하고 있으며, 최근 2015년 설문자료 결과에 의하면 국민의 91.2%가 자신들은 행복하다고 밝히고 있다.

1976년 부탄은 GNH의 개념을 처음 발표했고 부탄 국왕이 직접 행복의 정의를 “국가의 부(富)보다 국민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라고 정의하였다. 부탄은 국가적으로 행복을 국왕부터 행복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지 알 수 있다.

GNH의 이념은

1. 지속이 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발전
2. 환경보호
3. 문화추진
4. 좋은 통치

이상의 4개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를 더욱 상세하게 나누고 있다.

1. 심리적 행복
2. 국민의 건강
3. 교육
4. 문화의 다양성
5. 지역의 활력
6. 환경의 다양성과 활력
7. 시간 활용의 균형 (워크-라이프 밸런스)
8. 생활수준과 소득
9. 좋은 통치

GNH에서는 행복조사에 대한 체계적인 틀과 지표를 개발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개발, 국정에 반영한다. 또한, 각 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은 반드시 행복위원회를 거쳐서 행복에 저해되는 요소가 없는지 판단하며 만약 그러한 요소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 결과 문맹률이 40%로 낮아졌고 보건소의 확대 설치로 평균 수명이 43세에서 66세로 늘어났다. 국토의 녹지율은 64%에서 68%로 오히려 증가했다. 특히 2008년에는 왕실 주도로 절대군주제를 포기, 입헌군주제로 전환했다. GNH의 4대 기조 가운데 하나인 ‘좋은 정치’에 따른 결정이었다.

그 과정에서 폐쇄적 국가 운영과 국민 생활에 대한 제약도 있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1999년 처음 도입됐고 휴대전화는 2003년에야 사용되기 시작했다. 2004년에는 금연법이 시행돼 흡연과 담배 판매가 전면 금지됐다. 또한 모든 부탄 국민은 공식적인 자리와 공공기관 출입 시 전통 복장을 입어야 한다. 신축 건물의 전통양식 준수도 의무다.

●● 충남연구원 쪽에서는 사전에 공식적으로 세 가지 질문을 주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들 들었다.

1. 부탄의 행복지수는 객관적 행복과 주관적 행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는 것에 대해서 학계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또한 주관적 행복을 측정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주관적 행복은 당시 시기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만약 주관적 행복지수가 낮아지면 정치적으로 부담되지 않겠느냐?

- 답변 : 행복 정책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 선거에 의하여 내각과 총리가 바뀌어도 행복의 구성 요소 중 우선순위가 바뀔 뿐 행복 자체를 추구하는 것은 불변이다. 예를 들어 이전 총리는 decentralization을, 이번 총리는 equality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아젠다 모두 행복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여기에 대해서 충남연구원 방문자들은 부탄에서 매우 존경받는 왕의 존재가 행복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2. 부탄의 행복지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

- 답변 : 경제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 경제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면 행복이 어렵다. 따라서 굳이 우선순위를 묻는다면 경제적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할 수 있다.

3. 부탄의 GNH위원회와 다른 정부 부서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행복 관련 정책을 실제 수행하는 실무 부서가 있을 터인데, GNH위원회가 다른 정부 부서의 행복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만약 있다면 어떤 권한이 있는가?

- 답변 : 부탄의 GNH위원회와 다른 정부 부서와의 관계는 매우 좋고, GNH 위원회의 정책 조정이 잘 된다. 이는 이 위원회가 만들어진 부탄 특유의 역사적 맥락을 보면 된다. 부탄에서 처음 정부 조직을 만들 때, 인접한 국가 인도와 비슷하게 planning 부서를 매우 강력하게 만들었다. 부탄 GNH 위원회는 일종의 기획조정 부서라고 보면 된다. 행복정책을 위해서 이 위원회는 다른 부서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

5. 부탄 현장 방문

(1) 부탄 제2 도시 파로와 파로공항

부탄으로 비행기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파로(Paro)이다. 해발 2280m에 위치한 파로는 부탄 유일의 국제공항이 있고 이곳 공항에는 2개의 항공사가 있는데 부탄국영항공사인 'Druk Air'와 부탄 왕족이 운영하는 'Bhutan Air'가 있다. 우리 일행은 부탄에어를 이용해 Paro로 들어왔다. 비행기 자체는 그리 크지 않지만 승무원들도 역시 고유의 자국 전통의상을 입고 서비스를 하는 것을 보고 첫인상부터 강렬했다. 이 두 항공사의 비행기는 대형 비행기는 아니지만 근처국가인 중간경유지로 인도의 도시들을 거치는데 우리는 인도의 콜카타를 경유했다. 그 곳에서 많은 인도인이 탑승해 비행기내는 시끄럽고 번잡하였다.



파로를 가로지르는 강은 파로추 강으로 빙하의 물답게 매우 깨끗하고 아름답다. 물은 매우 차갑고 오염되지 않은 선명함으로 인해 태양빛이 물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보석들을 뿌린 것과 같이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다. 파로 들녘의 논과 밭은 이미 추수가 끝나서인지 황량하기는 하지만 전형적인 한국의 시골모습과 매우 흡사하다.

주민들 대부분이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고 있으며, 집안에 불단을 조성해 놓으며 그 옆에 국왕의 사진을 정성스럽게 걸어 놓는 것은 부탄의 어느 가정에서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파로 시(city)는 팀푸에 비하면 작은 소도시이지만 예전 19세기 잠시나마 한때 부탄의 수도였다는 것은 이곳이 다른 곳에 비해 그나마 평야가 발달되어 풍요한 쌀을 많이 생산할 수 있었고 인도나 티베트로 가는 길목이자 무역의 요충지였기에 가능했다.

(2) 파로 종(dzong)

파로 시내에는 그리 크지 않기에 파로 어디서든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산등성이에 위치해 있는 가장 큰 건물로 눈에 띄는 것이 파로 종이다. 부탄에서는 이처럼 어느 곳을 가든 지 그곳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건물이 있는데 이것을 Dzong이라 부른다. Dzong은 불교사원이자 행정기관이 공존하며 종교와 행정을 동시에 보고 있다고 한다. 종을 단순한 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대표하는 얼굴이자 심장으로서 여기기 때문에 가장 크고 웅장하게 건물이 지어져 있다. 파로종의 정식 명칭은 ‘린첸퐁종’이라고도 한다. 이 의미는 ‘보석 더미 위의 성’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부탄사람들은 이것보다는 파로종이라는 이름을 더 선호해 부른다.



이 파로종이 유명한 이유는 키아누리부스 주연의 1993년 제작된 영화 ‘리틀 붓다’의 배경이 되어서이기도 하다.

1644년 티베트 군대가 부탄을 침략했을 때 부탄의 영웅 샤브드롱은 파로종을 난공불락의 요새로써 만들었다. 지어질 당시에 파로종은 사원이나 행정기관이 아니라 전쟁을 방어하기 위한 철통 요새였던 것이다.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으면 1897년에는 강진 8.7이 발생했을 때도 거뜬히 견뎌냈다고 하니 정말로 튼튼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볼 수 있다. 1907년에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많이 손상되었지만 1908년 복원 공사를 하여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파로종의 내부에는 큰 광장이 있는데 이것을 도치라고 부른다. 또한 이곳 가운데에는 우체라고 불리는 5층 타워건물이 있는데 망루로써 적을 관찰하는 기능을 하던 곳이었다고 한다. 사원 안에는 뛰어 노는 많은 동자승들과 분주히 움직이는 스님들이 있다. 이들은 명상이나 염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각자의 일을 보고 있었다.

부탄은 어느 Dzong이나 박물관을 가던지 코끼리, 코끼리 등위에 원숭이, 원숭이 등위에 토끼, 토끼 등위에 자고새 그림을 볼 수 있는데 평화와 화합을 상징한다고 한다. 그 이유인즉슨, 코끼리는 나무 자체를 먹기 원하고, 원숭이는 열매를 먹기 원하고, 토끼는 나무의 새싹을 먹기 원하고, 자고새는 씨앗을 배출하는 각각의 역할로 서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영역을 나누어 분배하고, 양식을 먹는다는 이야기이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간에 영역은 구분하되 서로 간에 일은 도와서 해결한다면 싸움 일도 없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기에 이 그림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 파로 국립박물관

파로총 뒤편 산등성이에 윗부분에는 2개의 건물이 있다. 파로 국립박물관과 파로총이다. 파로 국립박물관은 1968년 국립박물관이 되면서 앞 전시관에는 다양한 불처, 파드마삼바바, 나왕남갈(샤브드롱) 그림이 시대별로 전시되어 있고, 부탄의 각종 문화재와 함께 티베트와의 전쟁에서 사용된 전쟁무기 등도 전시되어 있다. 유실된 철교의 석줄도 전시되어 있다. 박물관 후반부 전시관 쪽에는 부탄에서 서식하는 각종 동물들이 박제되어 전시되어 있고 그 설명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작지만 내실이 알찬 박물관이라 하겠다. 이 국립박물관은 그러나 2009년 발생한 지진으로 심하게 손상되어 리모델링했다고 한다.



또한 이 박물관 바로 앞에는 둥그런 나선형 모양의 지붕이 있는 건물이 있다. 정식 명칭은 '타종(Ta Dzong)'으로써, 원래는 파로총의 부속건물이었으나 전망대로 쓰인다고 한다. 이 건물은 1656년 건축되었다. 넓고 덩그러니 홀로 있는 건물이라 사람들이 가보지는 않고 사진만 찍는 듯 싶다.

(4) 나마이장(Nyamai Zem)

파로총에서 내리막길로 서서히 길을 따라 약 수백미터 내려오면 파오츄 강을 가로지르는 전통목조다리가 보인다. '나마이장' 라 부르는 이 다리는 고유의 전통미를 지닌 아름답고 튼튼한 다리이다. 장이라는 뜻은 다리라는 뜻이라고 가이드가 알려 주었다. 여기서 파로총을 보면 언덕 위로 우뚝 서 있는 모습이 사진 찍기에도 아주 좋은 위치인 듯 싶다. 다리 아래로 흐르는 강물은 유속도 빠르고 물의 양이 많아 래프팅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상상도 하게 된다.



(5) 탐촉라캉 철교

파로에서 텡푸로 가는 중간 길목에 계곡사이로 흐르는 쇠줄로 만들어진 철교가 하나 보인다. 차로 지나가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다리의 모습에 흥뻑 취해 한동안 멍하니 서있게 된다.

사실 이 다리를 지나면 바로 위에 탐촉라캉 사원이 있지만, 우리 일행은 텡푸의 공식 일정으로 인해 시간상 이 다리만 보기로 했다. 탐촉라캉 사원의 앞 돌판에 빨간게 무엇이나고 묻었더니, 고추를 말린다는 가이드의 답변에 웃음이 절로 나왔다.

이 다리는 1433년 탕동갈포라는 인물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이 사람은 총 8개의 철교를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는 이 철교만 유일하게 남아 있었는데 사실은 2004년 부탄의 큰 수해로 인해 이 다리도 유실되었다고 한다. 지금의 다리는 그 후에 재건하여 만든 다리라고 하나 오래된 다리의 느낌을 받는 기분은 예전의 기술 그대로 만들었기에 가능하다고 본다. 유실되고 남은 철교에 사용된 철제 고리 일부가 키추라캉을 비롯해 국립박물관 등에 보관돼 있다고 한다.



탕동갈포는 부탄에서뿐만 아니라 티베트에서도 유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1385년 티베트에서 태어났다고 한다. 탕동갈포에 대한 신화가 있는데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60년동안 있다가 태어났을 때는 백발로 태어났고 그런 그가 120살까지 살았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다. 그가 출가하여 티베트 각처를 돌아다니며 불교를 전파하여야 했는데 히말라야 구석구석 험준

한 계곡을 사람들이 건너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다는 사실을 안 그는 무려 180개의 다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중에 이 다리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많은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자본)이 필요했기에 자본을 얻기 위해 부가적인 사업을 했는데 연극, 춤, 민요, 악기 등을 하여 재원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래서 탕통갈포를 부탄에서는 ‘티베트 연극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6) 탁상공파

부탄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장소이자 부탄을 방문하는 모든 관광객들이 가 보는 곳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탁상공파다. 부탄을 다녀왔다고 하면 이 공파를 보지 않고서는 부탄을 다녀왔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하다. 탁상공파를 보는 순간 감탄사가 연발할 정도로 그 절경과 사원의 경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비행기의 여독을 풀 겨를도 없이 일정이 빠듯하여 파로에 도착하자마자 탁상공파를 방문하기로 했다. 탁상이란 뜻은 ‘호랑이 동지’라고 한다. 자세한 이야기는 조금 뒤에 설명하기로 하고, 우선 왜 탁상종이나 탁상라캉이라 하지 않고 탁상공파라고 할까? 부탄에서는 종(Dzong)은 사원과 행정기관의 복합체를 의미하지만 라캉이나 공파는 순수 사원을 말할 때 쓰인다고 한다. 라캉은 마을근처에서 쉽게 접근가능한 사원이나 법당을 의미하고 공파는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은둔의 사찰을 의미한다고 한다. ‘공파’의 뜻 자체가 속세를 벗어난 산 속에서 은둔생활을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기에 탁상공파도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이고 신성하게 보인다. 그래서인지 탁상공파 수행하는 내부공간은 외부인의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허락하는 공간마저도 휴대폰이나, 카메라 같은 작은 가전 기기도 용납을 하지 않는다. 출입구에 경찰이 상시 검열하는 것이 엄격하다.

탁상공파까지 올라가는 길은 실로 힘든 산길이다. 산길이 험해서라기보다는 고도가 높아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 고산병 증세가 오게 되어 두통과 메스꺼움이 한꺼번에 밀려온다. 마치 과음하여 길을 걸을 때의 기분과 똑같다. 이런 높은 산을 처음 등반하는 나를 비롯한 몇몇 일행 분은 정말 두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 자동차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해발 2600m에서 출발하여 3140m까지 산길이 꾸준히 올라가야 한다. 일부 관광객들은 조랑말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지만 조랑말도 중간지점 카페테리아 있는 곳까지만 올라갈 수 있다. 이곳은 2940m로 식사가 가능한 카페테리아가 있다.



카페테리아에서는 식사를 제공하며 부탄 고유의 음식인 쌀밥에 에마다치(고추 치즈 볶음)을 비벼 먹었다. 매운 맛이 한국인 입맛에 딱 맞고 하나도 느끼하지는 않다. 산길을 오르느라 얼마나 배가 고프는지 밥을 두 번이나 떠다가 먹었다.

카페테리아에서 탁상공파 뷰포인트까지 약 30분 더 올라가야 하지만, 고산지대에 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은 한걸음 한걸음 올라가는 길이 마치 천근만근이다. 숨이 턱까지 막히며 고산병의 증세인 두통을 참아가며 올라가야 했기에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지만, 부탄의 탁상공파를 못보고 가면 천추의 한이기에 이를 악물고 올랐다. 마침내 뷰포인트에 도달하자 한눈에 탁상공파의 풍경 자태가 눈에 들어왔다. 여기서 우리 일행은 휴대폰 사진을 맘껏 눌러댔다. 올라가는 길에 많은 부탄 학생들과 관광객들이 보인다. 우리가 탁상공파로 갔던 11월 4일은 우연히도 부탄의 공휴일이라고 하여 학생들이 사원에 기도하러 많이 올라가고 있었다.

뷰포인트까지 다다르자 한 숨이 절로 나왔다. 탁상공파가 눈 앞에 바로 있었지만 공파를 가기 위해서는 절벽으로 다시 내려갔다 올라가야 하는 거리이기에 기쁨도 한 순간이었다. 얼마간 사진을 찍고 탁상공파를 직접 방문해야 하기에 수백개의 계단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탁상공파가 절벽에 세워진 사찰이기에 절벽을 따라 계단길을 낸 듯 보인다. 내려가는 계단과 다시올라가는 계단 중간지점에는 거대한 수직절벽의 바위절벽에서는 폭포가 떨어진다. 폭포의 시원한 물줄기는 여기까지 힘들게 올라온 그 고통의 산행길에 대한 보상같이 느껴진다. 드디어 공파의 입구에 도착하여 사찰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가방, 휴대전화, 사진기를 모두 입구의 보관소에 내려놓고 가야 한다.



탁상공파가 부탄 최고의 불교성지이자 상징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이곳이 절경이 아름답거나 높은 산의 절벽에 사원이 세워져서이기보다는 부탄불교의 시조인 파드마삼바바의 전설이 내려오기 때문이다. 700년경에 파드마삼바바는 암호랑이를 타고 날아서 이곳에 왔다고 한다. 주변의 악마와 도깨비들을 물리치고 여기 이곳 탁상절벽의 바위동굴에서 석 달 간 명상에 들어갔다고 한다. 그 모양새가 마치 새둥지같이 생겨서 그래서 호랑이 둥지라는 표현이 생겨난 것 같다.

1951년 화재로 일부 소실되었고 1998년 또 다시 본당이 큰 화마를 입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다. 아마도 내부에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거나 개인소유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성스러운 곳이기도 하지만 화재의 방지 이유도 있는 듯하다. 그러나 2000년부터 국민들의 모금운동과 복원 공사로 2005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복원되었다고 한다.

(7) 부탄의 수도 팀푸

파로에서 팀푸까지의 거리는 차를 타고 약 2시간정도 거리이다. 부탄이라는 나라 자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에 험한 산들의 계곡을 따라 남쪽으로 쭉 내려왔다 다시 계곡을 따라 쭉 동쪽으로 올라가면 부탄의 수도 팀푸를 갈 수 있다. 부탄의 수도답게 많은 건물이 밀집한 것이 보이고, 많은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활기찬 도시의 모습이 엿보인다. 팀푸에는 왕궁, 중앙청사, 많은 오래된 사원, 많은 관공서, 국립경기장, 시장 등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곳이다. 팀푸가 부탄의 수도가 된 것은 1952년, 현대적인 수도로서의 외형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62년부터라고 한다.

여기의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살다보니 다른 도시나 시골의 깨끗한 환경보다는 물의 오염이나 차들의 매연은 심하다고 볼 수 있다.



팀푸의 인구는 12만명이고 차량도 약 3만대를 넘어섰다고 한다. 역시 수도답다는 것이 교통량이 정말 실감했다. 차들은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은 없는 도시라니 이상하게 생각하던 차에 팀푸 시내의 모든 건널목마다 교통경찰이 2명씩 서 있으면서 교통을 감시, 조절하고 있음을 보았다. 건널목은 거의 100미터 간격으로 촘촘히 있었는데 정말로 이렇게 경찰이 많은 것을 보고 여기 길거리에서는 범죄를 저질르거나 교통법을 위반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지경이었다.

부탄 수도에는 PC방도 있고, 8 Eleven/24 Seven 편의점도 있다. 크지는 않지만 백화점도 있다. 거리에는 스마트폰도 많이 들여다보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다. 팀푸가 현대적인 수도라는 것이 훨씬 느껴진다. 우리 일행은 점심식사로 산마루라는 식당을 갔다. 산마루라는 한식당인데 여기 사장님이 한국분 여자분인데 키가 크고 매우 미인이다. 한국식당이 있는 것 자체도 신기했지만 부탄의 음식만 먹다가 된장찌개, 돌솥밥을 먹으면 정말 내가 한국사람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8) 도르덴마

팀푸시내가 내려다보이는 팀푸 입구 언덕 위에 자리잡은 구리빛 청동으로 빛나는 석가모니 좌상이 있다. 이 청동좌상은 팀푸시내에서 언덕 방향으로 약 15분 정도 올라가면 해발 2500m에 위치해 있다. 그래서 이 좌상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올라가는 길은 산길이라 구불구불하지만 중간에 운동기구들이 있고 걸어서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부탄인들을 쉽게 볼 수 있다.

불상은 부탄 제5대왕 독 겔포 직메 케사르 남겔 왕축(Druk Gyelpo Jigme Khesar Namgyel Wangchuck)의 즉위를 기념하며 2004년부터 공사에 시작해 2008년에 세워졌다고 한다. 높이는 62m로 매우 웅장해 보인다. 그러나 2015년 현재 시점까지 입구와 주변 공사가 한 참 더디게 진행 중인 것을 볼 수 있다. 불상 주변에는 보살들이 주위를 둘러싸며 불상을 보호하고 있다. 불상 내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안에는 약 25,000여개의 손바닥만한 청동불상들이 기부를 받아 진열되어 있다.



(9) 국립 메모리얼 초르덴

팀푸 수도 한가운데 아주 작은 규모의 기념비가 있다. 메모리얼 초르덴이라는 이름의 이 기념비는 1974년 부탄의 3대 왕 Jigme Dorji Wangchuck(1928 - 1972)을 기리기 위해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지어졌다. 갑자기 병으로 죽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지었다고 한다. 굉장히 작고 아담한 사이즈의 규모이다. 들어가보면 맨 앞에 육각정이 있고 육각정안에는 다키니라는 여신이 서있고, 육각정뒤에는 흰색 기념비 건물이 하나 있으며 이 건물위에 황금색 초르덴 ㄷ쪽탑이 있다.

흰 색 기념비 네면이 동서남북을 가르키고 이 기념탑 주위로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돌고 있다. 많이 돌수록 장수한다고 하기에 우리 일행도 3번 돌았다. 네 면에 각각 부처에게 드릴 떡 모양의 모조품도 공양하고 있는 모습이 흥미롭다. 탑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절하는 사람도 있고, 마니차를 돌리는 사람도 있다. '옴마니반메훔'을 외우며 도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외우기 쉽게 (오마니발메유~)라고 하고 말하며 돌았다.

역시 들어갈 때 입구를 보니 가운데는 부처, 왼쪽은 파르삼마마, 오른쪽은 나왕남갈(샤브드룽)이 걸려져 있다.



(10) 타쉬초종

우리 일행은 일정상 직접 종을 방문하지는 못하고 주변 도로의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을 수는 있었다. 팀푸의 가장 큰 사원인 타쉬초종은 왕궁과 정부종합청사와 같이 있는 곳이다. 왕 추강을 따라 강둑 위에 자리하고 있다. 수도 팀푸에서만은 팀푸종이 아닌 타쉬초종 '영광스런 종교의 요새'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지금의 타쉬초종은 원래는 1216년 갈와 라낭 라마가 '푸른 돌의 요새'라는 뜻을 지닌 도젠종을 팀푸 외곽의 언덕 위(현재의 데첸 포드랑 사원)에 세웠다. 그러나 1641년 부탄왕국을 최초로 통일한 샤브드룽은 도젠종은 사원과 행정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작았다고 판단해서 언덕 위에 있던 도젠종을 대신해서 계곡 아래 강변에 새로 종을 건립하고 그 이름을 타쉬초종이라 명명했다.

타쉬초종은 두 차례의 화재와 1897년 발생한 대지진으로 대부분이 파괴되었지만 1902년 재건되었고 1962년 텀푸가 수도가 되면서 대대적인 확장 복원 공사가 진행되어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멀리서 바라보면 다른 종과는 확연히 다르게 매우 많은 건물이 요새처럼 밀집하여 있음을 볼 수 있다. 남쪽 건물은 정부청사, 북쪽 건물은 사원이라고 한다. 정부청사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는 부탄국왕이 집무를 보는 실도 있다. 부탄의 5대 국왕, 지그메 케사르 남갈 왕축 국왕은 2011년 결혼한 이후 4대 국왕이었던 아버지가 살고 있는 왕궁 대신 타쉬초종 바로 옆의 작은 건물에 산다고 한다. 타쉬초종의 큰 건물들 때문에 국왕이 사는 건물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다. 이 5대 왕은 본인의 집무실을 곁에서 혹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하니 얼마나 겸소한 지 쉽게 알 수 있다.

부탄에서는 파드마삼바바가 탄생을 축하하는 가장 큰 축제인 세추라는 축제를 여기 텀푸 타쉬초종에서 열고 파로에서도 소규모로 연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 텀푸의 축제가 가장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다고 한다. 이 축제에서는 각종 춤을 추는데 여러 동물, 신, 영웅들을 묘사하여 많은 춤을 춘다.

더구나, 우리가 방문한 시점인 2015년 11월은 마침 4대국왕의 60주년 탄생축하시점이며서 텀푸 거리거리마다 국왕의 사진이 걸려있고 탄생 축하 전야제 준비를 위한 분주함이 느껴졌다.

(11) 텀푸의 철옹성 심토카종

여기 심토카종 역시 우리 일행은 일정상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으나, 매우 역사적으로 뜻깊고 부탄 최초종인 심토카종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텀푸를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간단히 심토카종의 유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부탄의 수도 텀푸의 시내 한가운데 심토카종이 있다. '심토카'라는 뜻은 악마의 바위란 뜻으로 악마를 잡아 뿔산에 가두었다고 한다. 1629년 부탄의 영웅 샤브드룽이 이 성을 만들었다. 이 때 최초로 종이라는 개념이 확립되었고 이 때부터 사원이자 요새로서의 Dzong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샤브드룽은 여기 심토카종 요새에서 동부의 부탄세력, 티베트세력, 라다크 왕 군대에 의해 10년동안 3번의 침략을 받았지만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전쟁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러한 전쟁 끝에 결국 동부 부탄 연합국과 티베트로부터 내정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협정을 얻어 1655년 부탄 최초의 통일국가를 이루게 되었다. 샤브드룽은 '만인의 경배를 받는 고귀한 보석'이라는 별칭으로 본명은 나왕남갈이다. 부탄에서는 린포체(출가수행자가 인간으로 환생하여 증명된 사람)로서 여전히 존경받고 있고 거의 신격화된 인물이다. 샤브드룽은 티베트와는 다른 국가임을 만들기 위해 고와 키라라는 현재의 부탄 전통복장을 입게 하고, 머리는 단발로 하고, '초에시'라는 종교와 행정(세속)을 분리하는 이원체제를 확립한다. 종교의 우두머리는 '제캥포'라는 불교를 관장하고 정치 등 세속에 관한 부분은 '데시'라고 하여 스님

가운데 명망있는 사람을 선출하여 앉혔다. 샤브드롱은 후에 푸나카종으로 들어가 명상하며 100살도 넘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의 실제 죽음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것은 없다.

부탄을 돌아다녀 보면 최초의 부탄을 통일한 영웅 샤브드롱을 부처, 파드마삼바바와 함께 어느 사원이든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으며 이곳 심토카종에서도 그의 조각을 볼 수 있다고 한다.

6. 출장 의의와 향후 부탄과 협력 방안

(1) 이번 출장의 의의

충청남도는 안희정 지사가 이끄는 민선 5기부터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을 충남도정의 최고 비전으로 삼고, ‘행복’을 중심으로 한 도정을 펼쳐 왔다. 그동안 충남연구원에서도 충남도정의 방향에 맞추어 행복을 주제로 한 많은 연구를 수행해 왔다. 연구원 내부에 행복연구회를 만들어 운영해왔고, 자체적으로 충남 행복 지표를 개발하기도 했다. 또한 2012년부터 매년 행복을 주제로 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왔다. 충남연구원에서 행복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부탄의 정책 사례가 많은 참조사례가 되었다. 그래서 그동안 다음과 같이 부탄을 3차례 방문했고, 또 부탄 측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왔다. 이번 출장을 통해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충남의 행복 정책을 널리 세계적으로 소개했을 뿐만 아니라, 부탄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의 행복 연구 동향과 행복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고, 전세계 행복 연구자와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부탄의 협력 연구 기관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2) 충남연구원과 부탄과의 그동안 협력 관계

그동안 충남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3차례 부탄을 방문한 바 있다.

□ 1차 방문: 2011년 10월 29일 - 11월 7일

- 박진도 원장, 고승희 박사, 백운성 박사, 조영재 박사, 김정희 계장 등 방문
- 부탄연구센터, GNH 위원회 등 방문

□ 2차 방문: 2013년 1월 26일 - 2월 4일

- 홍성효 박사 방문
- 부탄 국제 행복 컨퍼런스 참여

□ 3차 방문 : 2013년 4월 23일 - 5월 2일

- 박진도 원장, 홍성효 박사 방문
- 국제 학술·연구 교류 협약 체결

또한 충남연구원이 주최하는 행복 국제 컨퍼런스에 3차례 부탄 측 인사를 초청하여 발표를 들은 바 있다.

□ 1차 초청 : 2012년 11월 30일

- 충남발전연구원 주최 국제 컨퍼런스 < 2013 행복한 삶 : 경제적 가치를 넘어 >
- 부탄 측 초청인사 : 카르마 치팀(Karma Tshiteem) 국민총행복위원회(Gross National Happiness Commission) 장관
- 발표 논문 제목 : 국민총행복 (GNH) - 행복을 위한 발전

□ 2차 초청 : 2013년 11월 22일

- 충남발전연구원 주최 국제 컨퍼런스 < 2013 행복한 삶 : 경제적 가치를 넘어 >
- 부탄 측 초청인사 : 다쇼 카르마 우라(Dasho Karma Ura) 부탄연구소장
- 발표 논문 제목 : 부탄 국민총행복(GNH)의 개념과 지표로 본 성장 잠재력

□ 3차 초청 :

- 충남발전연구원 주최 국제 컨퍼런스 < 2014 행복한 삶 : 경제적 가치를 넘어 >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
- 부탄 측 초청인사 : 카르마 왕디 (Karma Wangdi) 부탄연구소 부소장
- 발표 논문 제목 : 부탄의 행복 정책

< 그동안 충남연구원이 초청했던 부탄 측 인사들 >



카르마 치팀
Karma Tshiteem

카르마 치팀(부탄국민총행복위원회 장관) 2012년 11월 방문



다쇼 카르마 우라
Dasho Karma Ura

다쇼 카르마 우라(부탄연구센터 소장) 2013년 11월 방문



카르마 왕디(부탄연구센터 부소장) 2014년 12월 방문

(3) 향후 부탄과의 협력 관계 강화 방안 제안

부탄은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고, 부탄의 행복 정책은 세계적으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박근혜 정부가 행복을 국정 비전으로 삼고 있고, 충청남도 역시 행복을 도정의 중심 목표로 삼고 있다. 따라서 충남연구원이 부탄과 지금까지 맺고 있는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필요한 과제는 충남연구원과 부탄과의 관계를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향후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가. 지속적 상호 방문 및 주제의 구체화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매년 혹은 격년 간격으로 부탄 측 인사를 충남연구원에서 초청하고, 충남연구원 측에서 부탄을 방문하는 것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상호 방문 시기는 가능한 부탄 측에서 개최하는 국제 행복 컨퍼런스와, 충남연구원에서 개최하는 국제 행복 컨퍼런스 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때 방문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문 목적과 함께 발표하고 논의할 주제를 미리 1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특히 충남연구원 측에서는 행복지표 연구를 넘어서 각 부문별 (예를 들어 경제산업, 환경, 농촌농업, 지역도시 등) 로 특화된 행복 증진 정책 및 사업 분야를 주제로 자체 연구를 수행해 나가면서, 부탄 측과 교류 협력하는 것이 국제 교류의 실효성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부탄 현지 특파원 제도 운영

행복을 주제로 한 지속적인 상호 방문 교류와 더불어, 부탄 현지에 있는 한국인을 현지 특파원으로 활용하여 부탄 현지 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현재 부탄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극소수이지만, 이들을 잘 활용한다면 큰 비용 없이 부탄의 행복정책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 학술 교류를 넘어서 민간 협력 교류 지원

그동안 충남연구원은 부탄 측과의 지속적 상호 방문을 통해 부탄의 관련 기관이나 학계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과도 상당한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러한 신뢰 기반을 활용하여, 학술 교류를 넘어서 한국과 부탄의 민간 교류의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예로 부탄의 현지 여행사와 충청권 현지 여행사가 서로 협력하여 '공정 여행 프로그램' 을 함께 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라. 2016년 일본에서 열리는 행복 컨퍼런스 참여

2016년 국제 행복 컨퍼런스는 2016년 가을 부탄을 벗어나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 일본 컨퍼런스에 충남연구원 측에서도 적극 참여하여, 계속적으로 행복 컨퍼런스에 소속감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국제 행복 연구의 동향 파악과 인적 교류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7. 참고문헌

- CBS, List of Participants and Abstracts and Biodata of Speakers, 2015
CBS, Provisional Findings of 2015 GNH Survey, 2015
Tourism Council of Bhutan, Bhutan Tourism Monitor, 2014
공감만세, 부탄 여행 안내서, 2015
박진도, “박진도의 부탄이야기”, 한겨레21, 2015년 시리즈 연재
고승희, 백운성 “부탄이 만든 행복의 철학, GNH”, 충남발전연구원 해외출장보고서 2011
김현대 한겨레 기자, “부탄 행복 정책의 현장”, 2013. 6. 22

8. 부록

가. 부탄 방문시 만난 현지 주요 인사리스트

- 부탄연구소 주요 인사: 다쇼 카르마 우라(부탄연구소장), 카르마 왕디(부소장), 체링
 분초(수석연구원)
- 부탄 도서관: Harka Gurung(도서관장)



- * GHN 위원회 인사: Nyingtob Pema Norbu(수석기획관)



Nyingtob Pema Norbu
Senior Planning Officer

Perspective Planning Division
Macroeconomic Analysis Unit

GNHC SECRETARIAT
Royal Government of Bhutan

Chubachu, Thimphu
Tel: (975)-2-327983 Fax: (975)-2-325853
Mobile: (975)17614661
Email: npnorbu@gnhc.gov.bt
www.gnhc.gov.bt

Formerly known as The Planning Commission

- * 호텔 대표 남편, 부인: 린첸 체링(남편)



HOTEL DRUK CHEN
Khangkhu, Paro : Bhutan

Tele: 08 271 660 / 271 057
Fax : 272 022
e-mail : drukchen123@gmail.com /
dragon@druknet.bt

Web : www.hoteldrukchen.com

- 오리엔탈 여행사 대표 : 스리자나 구룽(부인)



Srijana Gurung
Proprietor/Managing Director

**ORIENTAL TRAVEL SERVICES
&
ORIENTAL TOURS AND TREKS**

Chang Lam Plaza
Room # 52 (Top Floor)
Thimphu Bhutan

Tel : +975 2 335912
Fax : +975 2 335911
Mobile: +975 17608141

Email: orientaltt@gmail.com website: www.oriental.bt

- 오리엔탈 여행사 안내원 : 산주 구룽

- * 한겨레신문 기자: 김소민
- * 한국음식점 식당 주인 등: 산마루

나. 컨퍼런스 발표자료 강현수 원장

- * 별도첨부

다. 컨퍼런스 발표자료 정종관 박사

- * 별도첨부